

3월 9일 뉴스 종합 정리

2009년 3월 9일

리서치센터

02) 2009-7087

chlee@leading.co.kr

제목	주요 내용
다우·S&P 반등 [DOW: 6,626.94pt (+ 0.49%)]	'바겐헌팅'에 나선 투자자들이 장 초반 지수를 끌어올리며 미 증시는 장 초반 2%대 이상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음. 그러나 애플의 실적 전망치 하향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금융주 역시 장 초반 반등탄력이 줄어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고, 한때 다우지수가 6,500아래로 떨어지는 약세를 보였음. 장마감 30분 정도를 앞두고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에 다우와 S&P가 플러스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음.
원자재 관련주 강세	유가가 배럴당 45달러를 회복하는 등 상품시장 강세로 원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유지하며 증시를 떠받쳤음. 구리채굴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6.98% 상승했음. 세계 최대 상장 석유업체 엑슨 모빌도 3% 상승했음.
달러 강세 지속 회의감	달러화 강세 지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계매물이 나오며 달러화가 유로 대비 약세를 보였음.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24분 현재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인덱스는 전날에 비해 0.6% 하락한 88.51을 기록했다. 달러/유로 환율은 전날에 비해 0.75센트(0.60%) 상승(달러약세)한 1.2615달러에 거래되었음. 바클레이의 외환 전략가 스티븐 잉글랜더는 "달러 매수 포지션이 확대돼 온 상황에서 시장의 강달러 심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"고 설명했다.
美실업률 8.1%...25년 래 최고치	미국 노동부는 이날 지난 2월 미국의 실업률이 8.1%를 기록해 1983년 12월 이후 25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밝혔다. 비노동부문 고용은 전망치를 1,000명 상회하는 65만 1,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12월과 1월 비농업부문 고용 감소 발표치가 수정돼 16만 1,000명이 더 늘어난 탓에 실업률도 시장전망치 7.9%보다 0.2%p 웃돌았음.
中 "위안화 국제 무역 에 적극 사용할 것"	저우샤오환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"네 개의 상업은행은 이번달부터 국제 상품거래를 위안화로 체결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발표.
中 유럽진출 본격화	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천더밍(陳德銘) 상무부 장관은 중국 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구매 사절단을 이끌고 독일, 영국, 스위스, 스페인 등 유럽 4개국 2차 순방을 시작. 여기에는 20개 국영기업이 동참했으며,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·합병 등 중국의 해외투자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.
中 "G20회담 경제 공 조에 집중돼야"	중국의 올해 외교 목표가 국제 신용위기 안정과 자국 경제 발전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발표. 양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달 주요 20개국(G20)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는 신용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라고 강조.

제목	주요 내용
日 3개 지방은행, 정부 구제금융 요청할 듯	삿포로 호큐오 홀딩스 등 3개의 일본 지역은행에 최소 1,100억엔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.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8일 관계자 발언을 인용, 일본 최대 지역은행인 삿포로 호큐오가 정부에 1000억엔 규모의 자금 수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.
OECD 경기 `먹구름`.. 선행지수 20개월 연속 하락	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경기선행지수(CLI)가 2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970년대 초 `오일쇼크` 기간 이후 최저치를 기록. OECD는 지난 6일(현지시간) 1월 30개 회원국들의 경기선행지수가 92.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1974년 12월~1975년 2월 사이 기록했던 91.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. 이 지수가 100을 넘고 상승하고 있으면 경기가 팽창하는 것을, 100보다 높지만 하락세면 하락 국면을 의미한다. 다만 100보다 낮아도 상승세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냄.
주식·펀드 침체에 증권 사들 "채권이 살길"	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, 시중금리 급락으로 상대적으로 금리 매력이 있는 회사채로 돈이 몰리면서 증권사들이 이 부문의 영업을 강화. 실제 지난달 회사채 발행규모는 8조 2,000억원으로, 지난 2001년 12월의 8조 5,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무려 7년 2개월만에 가장 컸음. 이처럼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자 인수합병(M&A)와 기업공개(IPO) 등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회사채 인수업무에 IB파트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.
삼성생명, 1개월 연속 휴가제 도입 확정	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6일 내부 검토를 거쳐 비용절감과 직원 휴식권 확대를 위해 `특별휴가제`를 도입키로 최종 확정. 사내 공지에 따르면 이 `특별휴가`는 연중 1개월간 끊임없이 쓰는 것이 원칙. 연간 2~3주의 연차 휴가에 일부 추가 휴가가 더해져 한번에 1개월의 장기휴가가 주어지는 것임.

<참고>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